

지식경영을 위한 회색문헌의 관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anagement of grey literature for the KM

김자영, 포스코경영연구소

Kim Ja-Young, POSCO Research Institute

지식경영과 전자정보환경에서 회색문헌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그 중요성에 비해 도서관이나 정보센터에서의 회색문헌의 수집 및 관리가 소홀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전통적 회색문헌의 개념과 더불어 인터넷과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른 회색문헌의 변화를 살피고자 한다. 또한 지식경영과 회색문헌과의 관계, 회색문헌 관리시 고려사항과 생산주체별 회색문헌 DB 구축사례를 제시함으로써 회색문헌과 관련된 도서관 및 정보센터의 역할을 살피고자 한다

1. 서론

인터넷의 발전을 통해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지식의 생산과 배포의 확대이다. 특히 비공식 연구정보, 시장조사보고서, Technical Report, Pre-print, 뉴스레터 등 일상적인 구매경로를 통해 입수하기 어려운 회색문헌의 폭발적 증가는 특기할 만하다.

회색문헌은 최근 주된 관심사인 지식경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식경영에서 강조되는 기업경영에 도움이 되는 공식, 비공식지식은 상당부분 회색문헌에 가깝다. 그 중요성에 비해 아직까지 도서관이나 정보센터에서 회색문헌의 수집 및 관리에 소홀한 면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전통적 회색문헌의 개념과 더불어 인터넷과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른 회색문헌의 변화를 살피고자 한다. 또한 지식경영과 회색문헌과의 관계, 회색문헌 관리시 고려사항과 생산주체별 회색문헌 DB 구축사례를 제시함으로써 회색문헌과 관련된 도서관 및 정보센터의 역할을 살피고자 한다.

2. 회색문헌의 이해

1) 전통적 의미의 회색문헌

회색문헌(Grey Literature)은 1978년 EEC(European Economic Community)와 BL(British Library) 주관으로 영국 York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처음 사용되었고, 영리 목적으로 팔기 보다는 지식의 배포를 목적으로 생산되고 배포되는 정보산물을 통칭하여 가리키는 용어로서 도서나 학술지와 같이 정상적인 유통과정에서 쉽게 입수하기 어려운 문헌을 의미한다.

여기서 회색(Grey)의 의미는 질적 통제(Quality Control) 등의 다른 기준이 배제된 단순 배포의 측면에서, 정상적 출판경로를 통해 생산되는 전형적인 문헌인 "white"와 대조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회색문헌은 학술지의 논문이나 단행본으로 발행되기 전의 보다 더 자세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출판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최신성 저하를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동료나 전문가 평가를 거치지 않아 질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회색문헌으로는 각종보고서, 학위논문, 회의록, 번역자료, Pre-prints 외에도 정부문서, Working Papers, 각종 통계자료, 각종 수치자료, 뉴스레터, 시장조사서, 기술조사서, 표준규격 등을 들 수 있다.

2) 전자정보환경과 새로운 회색문헌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결합과 인터넷의 출현이 전통적인 공간적·시간적 제약을 없애면서, 전 지구촌은 소유에서 접근으로, 단일도서관에서 네트워크화된 자원과 서비스로, 중개자에서 최종이용자로, 인쇄물 중심에서 다포맷 데이터로, 단방향 배포에서 상호작용으로 중심이 이동하는 거대한 패러다임 변화를 겪고 있다.

디지털 네트워크화된 정보환경은 회색문헌에도 두드러진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첫째, 아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회색문헌이 "White Literature"를 제치고 미래의 지배적인 배포 유형이 될 것이다. (Mackenzie Owen, GL'97)

	Grey	White
상대적 규모	증가	감소
생산/전달속도	높음	낮음
정보비용	낮음, 저하	높음, 증가
접근성	세계적, 무제한	제한
절적통제	혁신기법으로 제공될 것임	전통적인 동료비평과정

둘째, 회색문헌의 양이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회색문헌의 확대는 크게 2가지 경향 즉 정보생산사슬의 변화와 과학적 커뮤니케이션 유형의 변화에 기인한다.

과거에는 출판사라는 정보 창출매체를 통하지 않고서는 출판물을 생성하기도, 배포하기도 어려웠다. 그러나 네트워크화된 전자정보환경에서는 정보의 생산자가 출판사의 도움없이 직접 무비용으로 배포가 가능하다. 이 때 생산되는 정보는 "white"라기보다는 "grey"에 가깝다. 또한 네트워크를 통한 연구자들의 공식·비공식 상호작용이 활성화됨에 따라 그 결과로서 다양한 회색문헌들이 양산되고 있다.

셋째, 회색문헌의 유형에 대한 구분이 바뀌고 있다. 그 예로 특허와 표준은 상업적 DB와 인터넷 공개자료로서 접근이 가능하여 1993년에 회색문헌에서 제외되고, FTP, WAIS, 전자게시판, LISTSERVE 등의 토론그룹(Discussion List), 특정 프로젝트에 관한 정보를 수록한 Web Server, DL 등이 회색문헌의 새 유형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Carroll and Cotter, GL'93)

마지막으로, 회색문헌의 생산층을 다양화시켰는데, 도서관 및 정보센터에서도 회색문헌의 직접적인 생산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다시 말해 전자정보환경의 발달로 인해 정보원으로서 회색문헌의 중요성과 비중이 한층 높아졌다고 할 수 있으며, 전통적 회색문헌과 신 회색문헌을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

	전통적 GL	새 GL
주체	정부지원 연구개발의 결과	개인, 기관, 정부, 국제기구 등 모든 주체
배포처	정부 Clearing House 중심	Agency, 인터넷 중심
저장/배포매체	인쇄물, 마이크로매체	전자출판(멀티미디어, 데이터파일, S/W 등) FTP, 웹, 전자게시판 등
시장성	시장성 실패	시장성 높음

3. 지식경영을 위한 회색문헌 관리

1) 지식경영과 회색문헌

회색문헌은 최근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지식경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식경영에서 지식은 곧 경쟁력을 의미하며, 공식지식보다는 비공식지식을, 명시지보다는 암묵지, 결과보다는 과정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해 지식경영에서 말하는 지식 역시 "white"보다 회색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도서관 및 정보센터가 이제까지 각 기관 및 기업에서 중요한 정보자원의 역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비공식적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소홀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식경영은 정보센터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지식을 크게 내·외부의 2가지로 구분해 각각의 지식유형에 따른 정보센터의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정보센터는 기존의 이용자서비스 극대화뿐만 아니라 지식의 창출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노나카가 강조한 바처럼 조직 내부의 암묵적 지식을 명시적 지식으로 변환하는 것은 지식경영에서 핵심영역이다. 정보센터는 주도적으로 지식창조 프로세스에 참가

하여 소내 지식자산 규명, 표준화 및 DB 구축 등 체계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지식 재창출의 중심 역할을 맡아야 할 것이다.

둘째로, 정보센터는 외부의 가치있는 지식을 탐색하고, 수집·관리하기 위한 중개 필터링 센터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종종 지식경영 논의에서 외부지식의 역할이 간과되곤 한다. 그러나 세계 유수의 기업들과 경쟁하는 글로벌 경영환경에서 경영목적에 맞는 외부지식, 특히 경쟁사영업보고서, 시장조사보고서, 은행 및 증권사의 기업재무분석보고서, 연구개발보고서 등의 회색문헌을 신속하고 적시에 획득하는 것은 기업의 이익창출과 직결된다. 따라서 정보전문가는 회색문헌 정보원에 대한 사전지식을 가지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요구되는 회색문헌을 적시에 제공해야 한다. 또한 양산되는 모든 회색문헌을 소유하기 보다는 접근의 관점에서 적절한 사이트를 연결하는 링크자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2) 회색문헌의 관리

회색문헌의 관리는 곧 식별→획득→처리 → 재가공→저장→배포→사용확대의 사이클을 이루고 있다.

전통적인 회색문헌은 서지사항의 파악 등 식별(Identifying)이 어려웠다. 유통 및 배포의 측면에서 보면, 회색문헌은 비조직적이고 제작 부수가 적으며, 비매품이 대부분이라 상업적으로 비효율적이라 일상적인 구매경로를 통해서 입수(acquiring)하기가 어려웠다. 또한 특정정부의 독자나 연구자를 이용대상으로 하고 있어 배포범위가 제한되거나 비효율적으로 배포되었을 뿐 아니라 매체 및 편집형태가 다양하여 처리(processing), 재가공(repacking), 보관(storing) 또한 쉽지 않았다.

인터넷과 정보기술의 발달은 회색문헌을 식별하고, 통제하고, 조직하고, 배포하는 강력한 도구를 제공했다. 그러나 동시에 더 많은 회색데이터의 폭발적 증가를 야기해,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회색문헌의 특성 및 정보원을 식별하고 문제점을 고려해 자관의 목적에 맞는 올바른 수집정책을 수립하고 저작권, 표준화 및 질적통제와 같은 관리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Geifand의 주요 대학도서관 및 각 주제 전문 프로젝트들의 회색문헌 장서개발에 관한 포괄적인 사례연구 결과 장서정책이란 융통성을 가지고 항상 개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참고로 회색문헌 장서개발 정책 수립시 고려해야 할 몇몇 중요 요소는 다음과 같다. (Geifand, GL'93)

1. 선택 책임
2. 재정 자원 - 누가 지불하느냐
3. 수집 행위의 수준
4. 주제 범위
5. 임시 영역 - 기간(time periods)
6. 공간 분야 - 지역 특정 또는 출판 출처
7. 이용자 요구
8. 데이터 독창성
9. 정보의 최신성
10. 데이터의 신뢰성
11. 생산물의 포맷
12. 다른 장서와의 호환성
13. 문서화
14. 질
15. 문서에의 접근성
16. 역사적 중요성
17. 분석 수준

3) 회색문헌 DB 구축사례

회색문헌의 식별을 위해서는 먼저 회색문헌 유형별, 생산주체별 회색문헌 DB 구축사례를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네트워크 환경에서 저자나 모체기관이 회색문헌의 1차적 생산자로 등장하면서 전세계적으로 무수한 회색문헌 DB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다 포괄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생산주체를 개별기관, 협력체, 정부기관, 국제기관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삼성경제연구소와 포스코경영연구소 등의 인터넷을 통한 연구정보 제공, 한국통신 연구개발단의 Technical Report 구축, 네덜란드 Tilburg 대학의 경제학 교수의 연구정보 (Research Memorandum)의 전자출판 및 배포를 위한 Greyfile 프로젝트, NBER, IMF, WB, Warwick 대학 등의 Working Paper 구축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인터넷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개별기관들은 비공식 내부정

보, 발간물 외에도 각종 회색문헌을 생산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공개·배포하고 있다.

이같은 네트워크의 정보제공자의 양산에 의한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조정이 필요하다. 하나의 해결책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이 협력체의 구성을 통한 접근용이성의 확보이다. 즉 여러 기관의 협력하에 네트워크화된 출판물의 클리어링하우스의 역할을 하는 National 또는 Globalized Document Distribution Center를 가지는 것이다. 지역협력체의 예로는 북미 100여개 대학 및 연구도서관의 회색문헌 협력체인 CRL, 네덜란드 7개 대학의 경제/경영분야 Working Paper의 원문을 웹을 통해 전자출판 및 배포, 이용하는 DEGREE 프로젝트 등이 있으며 대표적인 국제협력체로는 유럽 주요국의 9개 기관이 참여하여 회색문헌 및 유럽연합내 국가들의 중요 국가정보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회색문헌 협력체인 SIGLE을 들 수 있다.

전통적으로 회색문헌의 배포는 미국의 NTIS, 일본의 JICST과 같은 정부부처 산하기관들의 국가적 회색문헌센터로서의 역할에 의존해 왔다.

국내에서도 국가적 차원에서의 경쟁력 확보와 회색문헌에 대한 접근 확대 및 입수 용이성 증대의 측면에서, KORDIC, KERIS와 같은 국가회색문헌센터들을 중심으로 협력체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별기관은 정보의 1차적 생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국가기관에서는 구축할 회색문헌의 범주를 결정하고 표준화 및 저작권 문제를 해결한 후 산발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회색문헌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링크의 연결자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4. 결론

전자정보환경의 발달과 학술 커뮤니케이션 과정은 회색문헌에 있어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회색문헌의 폭발적 양산과 접근성의 증가로 이용자들의 회색문헌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어 그 중요성과 비중이 높아졌다.

이제 정보전문가들은 모든 유형의 비전통적인 정보자료들에 관심을 열어 두고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그 잠재적

가치를 이용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또한 정보전문가들은 회색문헌의 식별, 획득, 처리, 재가공, 저장, 배포 및 이용 증대에 관련된 제한 사항을 고려하여 서비스 및 지식창출에 앞장서야 한다.

마지막으로 개개의 도서관 및 정보센터는 회색문헌의 직접적인 생산자가 되어야 한다. 또한 회색문헌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CRL 협력의 예처럼 기관간, 지역간, 국가간 전략적 제휴를 검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참 고 문 헌>

1. 박은자. 1984. "그레이 리터러춰(Grey Literature)의 중요성," 서울여대 14, pp. 57-65
2. 최선희, 조현양, 오상훈. 1997. "인터넷을 통한 회색문헌의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연구," 제 4회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pp. 55-58
3. 산업기술정보원. 1994. "유럽 회색문헌정보 시스템 SIGLE," vol. 25 no. 4, pp. 86-40
4. Daniela Luzi. 1998. "E-print archives : a new communication pattern for grey literature," *Interlending & document supply*, vol. 26 no.3, pp. 130-139
5. M. C. Debacnere. 1995. "Problems in Obtaining grey literature", *IFLA Journal*, vol.21 no.2, pp.94-98
6. GL'93 Firs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Grey Literature. December 13-15, 1993, Amsterdam, The Netherlands
7. GL'95 Seco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Grey Literature. November 2-3, 1995, Washington D.C., USA
8. GL'97 Thi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Grey Literature. November 13-14, 1997, Jean Monnet Building, Luxembourg
9. D. J. Farace. 1997. Notebook on Grey Literature : A Systematic Approach to Grey Literature in Printed and Electronic Form. Amsterdam, Grey Literature Network Service
10. C. P. Auger. 1994. Information Sources in Grey Literature, London : Bowker Saur Ltd.